화순에 국산 목재활용 '건축목재 생산단지' 준공

산림청 공모…국내 3번째
국비 등 60억 투입해 조성

소비 증진·산업 활성화 등
호남 생산거점 자리매김 기대

1일 화순 이양농단지에서 열린 목재산업단지 준공식에 참석한 최규웅 친환경목조건축협동조합 이사장과 신정훈 국회의원,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구복규 화순군수, 오형렬 화순군의장, 김강헌 영광군의장, 김우환 광주지방조달청장, 황기철 전 국가보훈처장 등 내빈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전남 목조건축 산업의 초석이 될 '목재산업단지'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국산목재 소비 증진을 이끌어 내고 목재산업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1일 오후 2시 화순군 이양면 이양농단지에서 목재산업단지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신정훈 국회의원,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구복규 화순군수, 오형렬 화순군의장, 김강헌 영광군의장, 김우환 광주지방조달청장, 임지락·이재태 도의원, 최규웅 친환경목조건축협동조합 이사장, 강석구 충남대 교수, 황기철 전 국가보훈처장과 조합원, 산림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목재산업단지의 성공적 운영을 기원했다.

화순 이양농공단지에 위치한 목재산업단지는 지난 2022년 산림청 공모에 선정돼, 3년간 50억원을 투입해 조성됐다. 충북 제천, 강원 춘천에 이어 국내 3번째다.

이곳은 지난 2022년 산림청 주관 '목재산업단지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돼 이양농공단지 내 6600㎡ 부지에 국비 등 총 60억원(국비 25·도비 5·군비 5·자부담 25) 투입해 지난해 완공했다. 당초 사업 예산이 50억원이었으나 사업 진행과정에서 원자재 및 외화 폭등으로 어려워지자 조합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자부담 10억을 추가하기도 했다.

단지에는 공장·창고를 비롯해 구조용 집성재 및 집성판 프레스와 목공밀링머신 등 목재가공 장비 9종, 제재, 세공설비 등을 갖추고 있다.

목재는 탄소를 저장하는 능력이 있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친환경 소재다. 성장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나무는 건축자재로 사용된 후에도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계속 수행한다.

한국산림과학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목조주택 41평형을 건축할 경우 34t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승용차 45대가 1년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상쇄할 수 있는 양이다.

또한 철근이나 콘크리트와 달리 자연에서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순환 이용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고부가가치 가공기술이 발전하면서 내구성·내화성이 강화된 혁신적 목재제품이 등장해 콘크리트를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목재산업단지를 운영하게 될 '친환경목조건축협동조합'은 앞으로 전남의 주요 생산수종인 편백, 삼나무 등을 앞세워 전국각지의 유통망을 구축해 구조용 집성재 및 CLT(집성판) 등을 생산·판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산목재 소비 증진을 이끌어 내고 목재산업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학연관 클러스터를 구축해 제품 생산과 동시에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기술개발과 신제품 출시로 경쟁력을 갖출 전망이다.

최규웅 친환경목조건축협동조합 이사장은 "목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최적의 건축 재료로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친환경 건축의 페러다임을 바꾸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정훈 국회의원은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회는 물론 지방 의회와 함께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호남을 기반으로 한 목조건축 구조용 집성재 생산단지를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목재산업단지에서 생산된 목재를 공공기관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의회 등과 협의해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면서 "화순 목재산업단지가 도내 목재산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토록 산림과와 산림연구원과 함께 활성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목재산업단지가 화순에 새 둥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 목재산업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 강화를 통해 화순이 대한민국 목재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하도록 군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NEWS

2025년 4월 2일 수요일

도 농작물 품종보호권
전남농기원, 신청 접수

전남도농업기술원(김행란 원장)은 그동안 육성한 신품종의 생산 및 보급 확대를 위해 희망하는 종묘업체를 대상으로 통상실시 계획을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농작물 신품종에 대한 통상실시는 품종보호권을 타인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품종 증식, 생산, 판매, 수출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번 통상실시 대상 품종은 양파, 키위 등 총 22개 작목 107품종으로, 궤양병에 강하고 EU 등에서 로열티를 받고 있는 골드키위 '해금'과 기계수확이 가능한 '산포' 녹두 등이 포함된다.

통상실시권을 희망하는 종묘업체는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누리집(https://www.jares.go.kr/main)에 게재된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를 참고해 오는 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양파, 키위, 수국 등 16개 작목 158품종을 통해 총 1억8000여만원의 로열티 수입을 올렸으며, 지난해까지 '새청무' 벼, '금송이' 양파, '해금' 키위 등 10개 작목 13품종 10만2404ha를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다.

특히, '해금'과 '해원' 키위는 2021년부터 2046년까지 EU 등 27개국에 수출되며 큰 성과를 이루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시 공직자들, '착한 소비' 동참한다

시청 구내식당 휴무 확대…점심 인근식당 이용

광주시 공직자들이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착한 소비'에 동참한다.

광주시는 4월부터 매월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에 구내식당 중식을 휴무한다. 구내식당 휴무는 매주 2회 수요일(가족사랑의 날)과 금요일(지역경제 활성화) 석식에 적용하던 것을 이번에 월 2회 중식 휴무로 확대한 것이다.

이는 고물가·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시청 전 직원이 솔선수범해 소비 촉진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광주시는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얼어붙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난해 12월 24일과 27일 두 차례 구내식당의 문을 닫고 '인근 식당 이용하는 날'을 운영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나누기 위해 힘을 보탰다.

또 지난 1월 23일 경제단체, 산업계 등 76개 기관·단체와 함께 '2025 광주경제 다함께 착착착(착한소비·착한금융·착한일자리) 광주'를 열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이날도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구내식당 휴무를 실시했다.

광주시는 이밖에 '2025 광주경제 다함께 착착착'의 민생경제 정책 실천방안으로, 올해 1분기 전통시장·동네상점 이용하기, 광주공공배달앱 이용하기 등 지속적인 소비촉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황인채 총무과장은 "구내식당 휴무는 고통을 분담하고 소상공인들과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자는 의미에서 결정했다"며 "광주시 구내식당 하루 이용인원이 900명 가량으로 이들이 인근 주변 식당을 이용하게 되면 침체된 주변상가에 조금이나마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

청년정책 원클릭…광주청년통합플랫폼 개통

취창업·이러닝·금융 등 종합상담…취미·아이디어 공유도

광주 청년들에게 필요한 청년정책 정보를 알차게 제공하는 '광주청년통합플랫폼(https://youth.gwangju.go.kr)'이 정식 개통했다.

광주시는 광주시 누리집에서 운영하던 청년정책플랫폼을 지난해 독립 시스템인 '광주청년통합플랫폼'으로 새롭게 구축, 3개월 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1일 개통했다.

새로 선보인 '광주청년통합플랫폼'은 청년들이 쉽고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찾아 원스톱으로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분야 등 다양한 정책을 인공지능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고, 각종 사업 신청, 상담·공간 예약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광주청년통합플랫폼'에서는 광주시·자치구 및 전국 청년정책 정보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맞춤형 서비스, 우수기업 및 일자리 정보, 청년 종합상담, 청년 자율공간, 역량 강화 학습지원 등을 안내한다.

인공지능(AI) 맞춤형 서비스는 사용자 정보, 플랫폼 내 활동, 관심분야 등을 기준으로 특징을 분석해 추천 사업, 연관 콘텐츠, 주변 청년 공간의 정보를 제공한다.

청년 종합상담 공간은 취·창업, 교육, 금융 지원 등에 대한 종합상담 및 청년정책 관련된 간편 문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전화·방문·게시판 상담을 운영한다.

여기에 '고용24(https://www.work24.go.kr)'에서 제공하는 공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활용해 일자리 찾기, 강소기업 및 일자리 우수기업 등 정보, 역량강화 학습을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일학습 병행과정, 이러닝학습 등이 가능하다.

청년 자율공간은 청년들이 취미를 나누고 아이디어를 발산하는 공간으로, 현재 공공에서 운영하는 100여 곳의 정보를 제공 중이다. 앞으로 민간부문 50여 곳을 추가 지정해 청년들에게 공간정보와 예약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광주청년통합플랫폼의 이용자 확대와 인지도 향상을 위해 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300명(3만원권 30명, 1만원권 270명)에게 공공배달앱 '땡겨요' 상품권을 지급하며, 28일 광주청년통합플랫폼에서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참여 방법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주청년통합플랫폼 메인·정책정보 관련 홍보게시물을 이미지, 해시태그(#광주청년통합플랫폼)와 함께 작성, 플랫폼 이벤트 페이지에서 게시글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자세한 이벤트 참여 방법은 광주청년통합플랫폼과 광주시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